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감소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06.6(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2.1%p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5.2% 증가하고 대형마트 부문이 8.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6.4%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2%p 하락, 상승폭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함 - 상품부문, 서비스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62.4%로 남자는 74%, 여자는 51.5%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천명(0.2%) 증가한 4,949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1만5천명(0.3%) 증가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2%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0.7%p로 지난달보다 감소함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1,39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0% 증가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증가로 43.2%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재개발 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증가로 47.5%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6%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이 2.4%, 강남지역이 0.9% 상승하며 강북지역의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강남지역도 상승폭이 확대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은 전월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하고 강북지역이 1.1%, 강남지역이 0.6%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 유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43조 1,244억원이고, 전월대비 10조 1,247억원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69개로 전월대비 19.3%(207개)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9개로 전월보다 7개 증가 ○ 서울시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 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4월중 1,396건, 54,741백만원으로 전월대비 건수는 5.8%, 금액은 4.1% 증가 ○ 서울시 수출 증가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항공기 및 부품, 컴퓨터 부문의 수출 증가율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40.9%의 증가율 기록 - 특히 최근 수출 하락세(2008.2.: 29.3억달러→2008.3.: 27.6억달러)를 보이던 중 4월 기준 31.8억달러의 증가세로 전환

| 생 · 산 |

3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투자 호전 등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나감
 - 3월 중 생산은 광공업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다소 주춤하였음
 -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고는 지난달보다 확대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지난달에 비해 0.8% 증가 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10.0% 증가하여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감
 - 서비스업 생산은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증가하여 지난달 수준인 -0.1%를 유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5.4%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06.6(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대폭 감소, 경공업부문 소폭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하여 지난 달 보다 감소세가 완화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12.0%)는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37.4%), 금속가공(-39.5%)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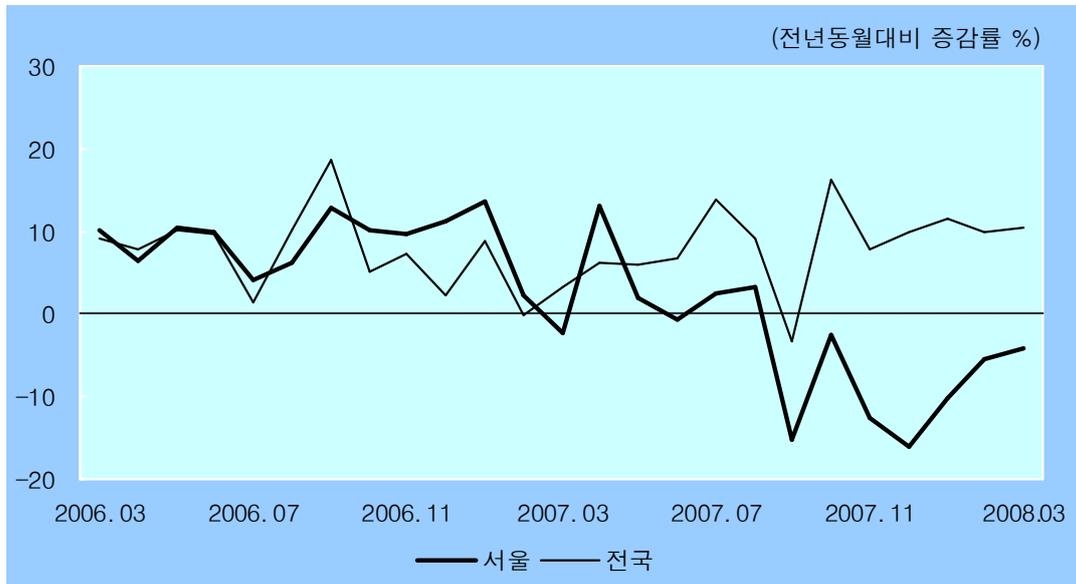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3.3 (15.7)	7.8 (-1.1)	9.9 (-4.6)	11.5 (2.0)	10.0 (-12.0)	10.3 (16.0)
	서울 (제조업)	-2.2 (10.1)	-12.5 (-6.4)	-15.9 (-2.4)	-10.3 (-3.8)	-5.5 (-11.0)	-4.0 (11.8)
	중공업	3.5 (0.3)	-24.2 (-9.1)	-27.0 (5.5)	-25.3 (-11.8)	-17.8 (-6.2)	-14.7 (4.1)
	경공업	-5.7 (18.1)	-3.6 (-4.8)	-6.5 (-7.0)	1.5 (1.6)	4.5 (-13.7)	3.3 (16.6)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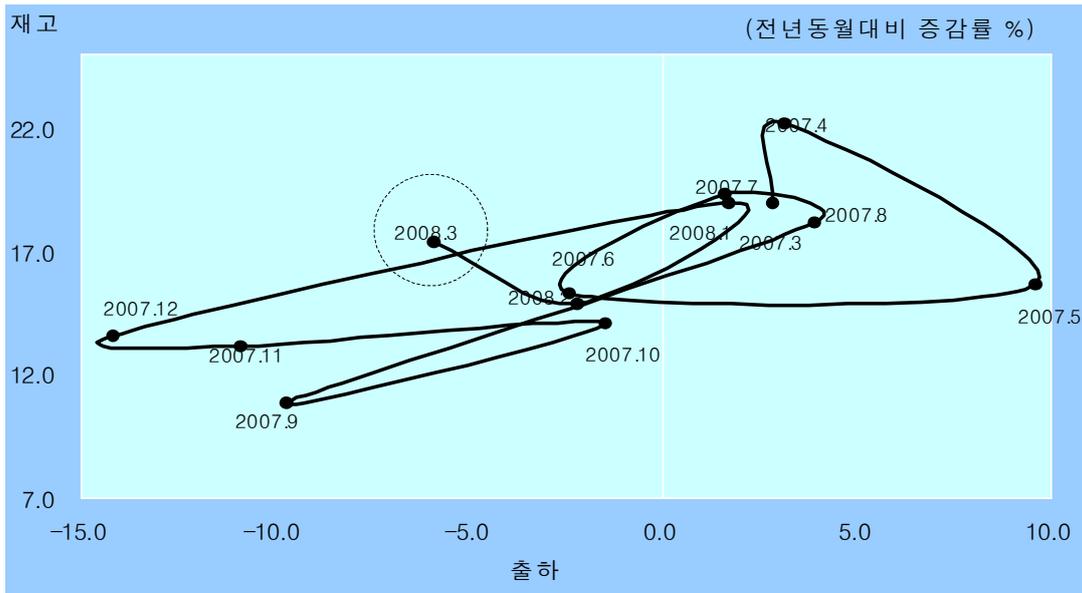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3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금속가공,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비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3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등의 재고로 전월대비 2.9% 증가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식료품,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7.3% 상승한 150.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8% 증가한 146.7%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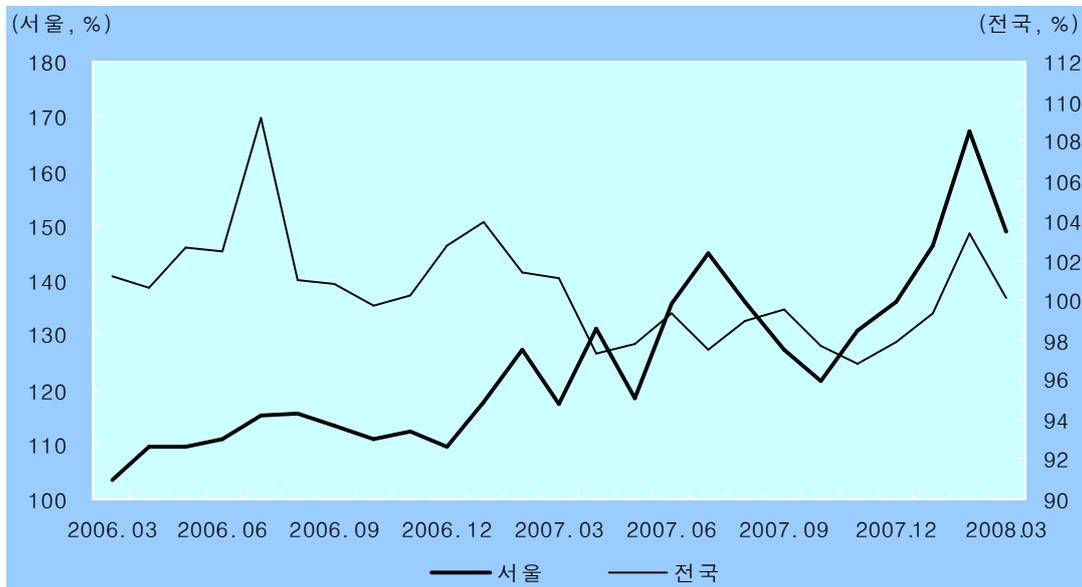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p	2월	3월		
재고율	전국	101.1	96.8	97.9	99.3	103.3	100.1	-3.2
	서울	172.7	130.8	137.5	149.0	172.2	148.8	-23.4
	중공업	169.8	123.6	122.5	147.5	167.7	150.4	-17.3
	경공업	172.2	133.4	145.8	148.6	174.7	146.7	-2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3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3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로는 7.8%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차량용연료 등에서 비중이 커진 반면, 식료품, 의류 및 신발 등은 다소 축소되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3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 3971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혼수용 귀금속류 및 봄철 이사 시즌 등으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용품류의 준내구재 기타 상품군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신학기 준비 및 입학 행사 등으로 인해 가방 및 서적 문구류 등의 상품군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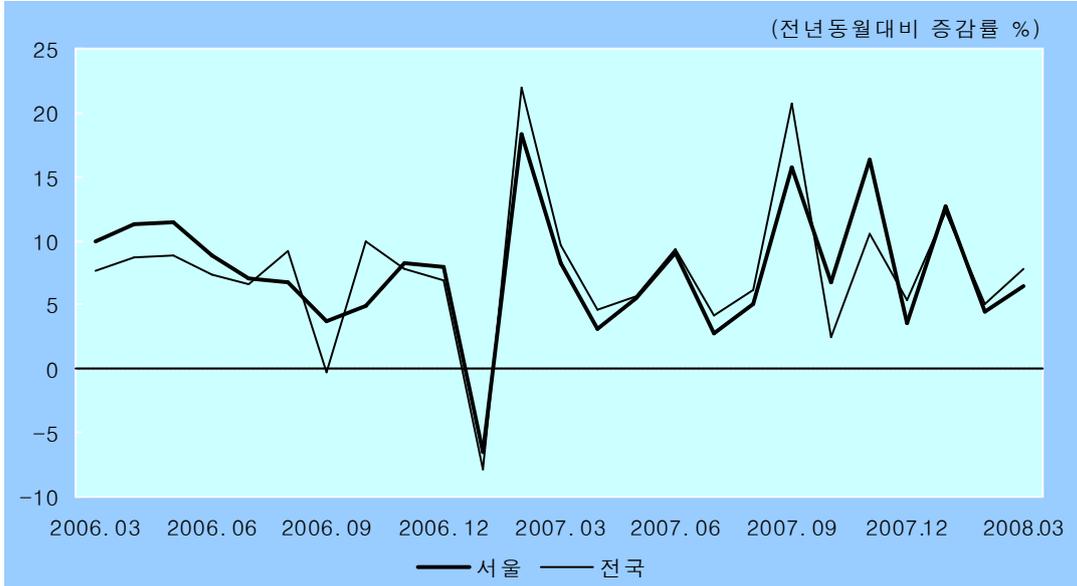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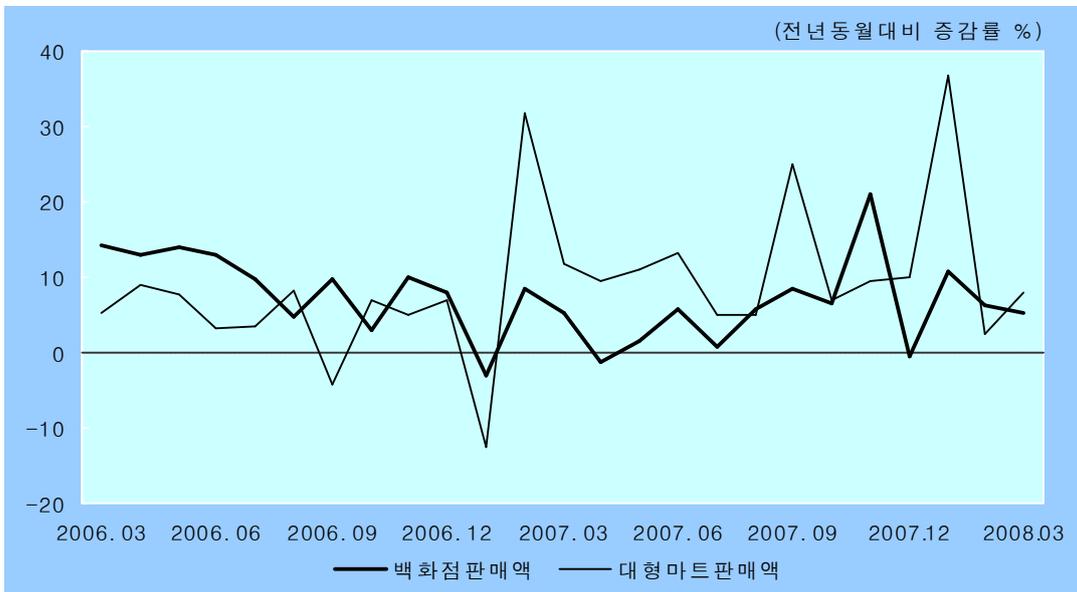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판매액	전국	3887.1 (9.7)	4190.3 (10.5)	4600.4 (5.3)	4216.9 (12.2)	4134.3 (4.9)	4188.8 (7.8)
	서울	1313.1 (8.2)	1486.2 (16.4)	1609.5 (3.5)	1411.3 (12.6)	1326.3 (4.3)	1397.1 (6.4)
	백화점	739.4 (5.2)	908.5 (21.1)	961.4 (-0.5)	803.3 (10.8)	701.7 (6.2)	777.8 (5.2)
	대형마트 (할인점)	525.2 (11.0)	577.6 (9.6)	648.1 (10.0)	608.0 (15.0)	625.6 (2.5)	619.4 (8.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전년동기대비 4.0% 각각 상승
- 전월에 비하여 통신, 교양오락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외식숙박 등이 상승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5.1% 각각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005=100)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은 전도시 평균(0.6%) 보다 낮게 상승함
- 대구, 인천, 대전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 하였으며, 부산, 광주,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음
- 피망, 무, 부추 등의 농축산물과 금반지, 가루비누 등의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전세 및 월세 등의 집세와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국제항공료, 김밥, 갈비탕 등의 개인서비스 부문은 각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함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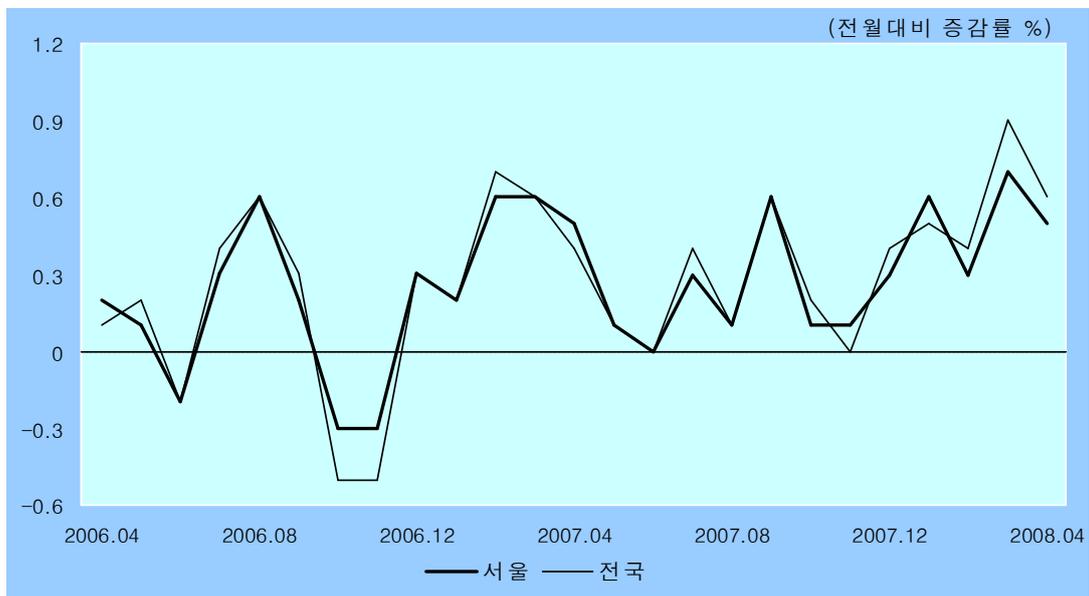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전국:0.7%), 전년동월대비 4.1%(전국:5.1%)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전국:-0.5%), 전년 동월대비 6.7%(전국: -4.1%) 각각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전국	0.4 (2.5)	0.0 (3.5)	0.4 (3.6)	0.5 (3.9)	0.4 (3.6)	0.9 (3.9)	0.6 (4.1)	
	서울	0.5 (2.6)	0.1 (3.4)	0.3 (3.4)	0.6 (3.8)	0.3 (3.5)	0.7 (3.6)	0.5 (3.5)	
	상품 성질별	상품	0.5 (1.9)	0.0 (4.1)	0.5 (4.2)	0.8 (4.8)	0.1 (3.8)	0.2 (3.9)	0.8 (4.3)
		서비스	0.4 (2.9)	0.2 (3.1)	0.2 (3.1)	0.4 (3.2)	0.4 (3.2)	0.9 (3.2)	0.3 (3.1)
	생활물가	0.7 (3.2)	0.0 (4.7)	0.3 (3.4)	0.4 (4.9)	0.3 (4.4)	0.9 (4.3)	0.5 (4.1)	
	신선식품	0.7 (3.4)	-6.3 (10.7)	0.3 (3.4)	-1.5 (4.3)	-0.2 (-2.5)	-4.4 (-5.1)	-1.0 (-6.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4월 15세 이상 인구는 39,5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0천명(1.0%)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71천명으로 96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24천명으로 63천명(0.6%) 증가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중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0.9%), 전월대비 4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1%)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천명(0.0%)이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는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1.6)	1.0 (0.0)	0.9 (-2.0)	0.7 (-1.1)	0.7 (-0.1)	0.6 (1.7)	0.7 (0.6)
	서울	0.0 (1.1)	0.2 (0.0)	-0.1 (-1.2)	-0.1 (0.0)	0.2 (-0.7)	1.0 (1.1)	-0.1 (0.0)
	남자	0.0 (0.8)	0.7 (0.2)	0.2 (-1.0)	0.0 (0.0)	-0.3 (-0.5)	0.2 (0.9)	-0.4 (0.2)
	여자	0.0 (1.5)	-0.5 (-0.2)	-0.5 (-1.3)	-0.3 (0.0)	0.9 (-0.9)	2.1 (1.4)	0.4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3	62.2	61.0	60.3	60.1	61.1	62.0
	서울	63.0	63.1	62.3	62.2	61.8	62.4	62.4
	남자	75.0	74.7	73.9	73.6	73.2	73.8	74.0
	여자	51.7	52.2	51.5	51.4	50.9	51.6	51.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4월 취업자는 23,7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천명(0.8%)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9,960천명으로 71천명(0.7%)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60세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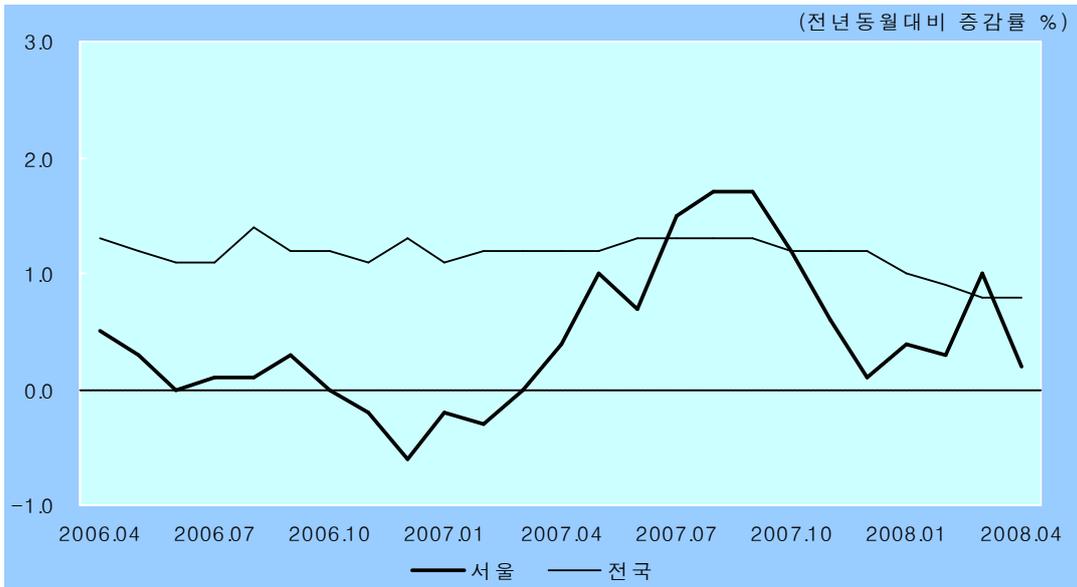
- 2008년 4월중 취업자는 4,94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 전월대비 15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5천명, 여자는 2,1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여자는 7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남자는 7천명(0.3%), 여자는 8천명(0.4%)이 각각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14천명(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천명(1.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천명(0.9%)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3천명(-44.3%), 제조업 20천명(-2.9%), 건설업 5천명(-1.1%)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 1천명(34.5%), 건설업 15천명(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천명(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천명(0.6%), 제조업 3천명(0.4%)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 22천명(-1.6%)이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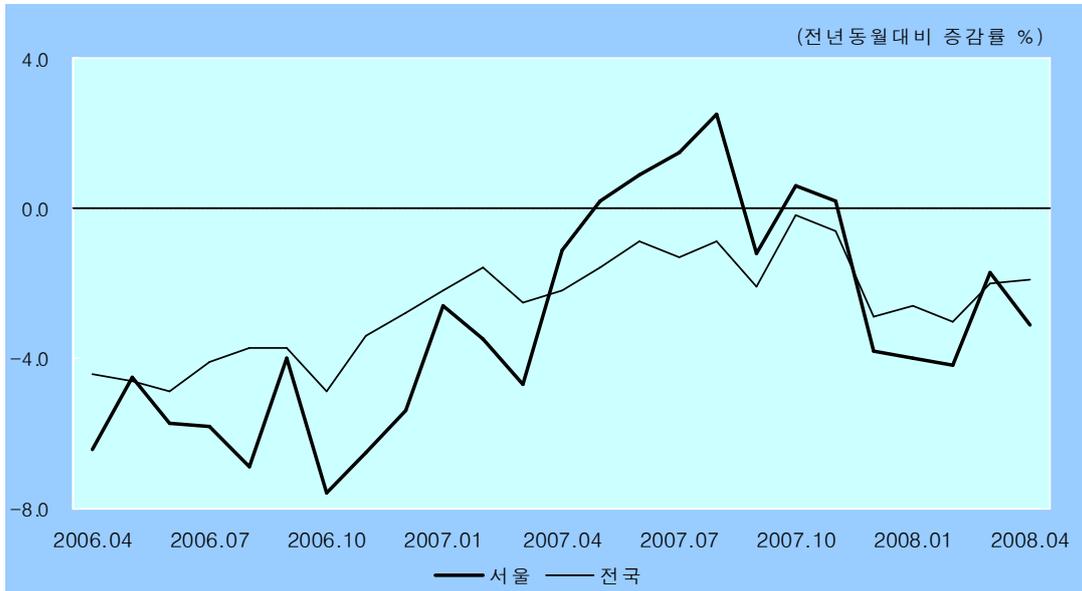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전국	1.2 (1.7)	1.2 (0.0)	1.2 (-2)	1.0 (-1.3)	0.9 (-0.3)	0.8 (1.8)	0.8 (1.7)
	서울	0.4 (1.2)	0.6 (0.0)	0.1 (-1.3)	0.4 (-0.1)	0.3 (-1.0)	1.0 (1.5)	0.2 (0.3)
	남자	0.2 (0.6)	1.4 (0.3)	0.9 (-1.2)	1.1 (-0.2)	-0.3 (-0.9)	0.4 (1.5)	0.1 (1.2)
	여자	0.8 (1.9)	-0.5 (-0.5)	-0.8 (-1.4)	-0.5 (0.1)	1.1 (-1.1)	1.9 (1.5)	0.3 (2.5)
청년층 취업자	전국	-2.2 (0.6)	-0.6 (0.6)	-2.9 (-1.6)	-2.6 (2.5)	-3.0 (-2.5)	-2.0 (-1.2)	-1.9 (0.7)
	서울	-1.1 (2.5)	0.2 (1.0)	-3.8 (-3)	-4.0 (3.5)	-4.2 (-3.2)	-1.7 (0.5)	-3.1 (3.1)
고령층 취업자	전국	6.6 (5.9)	2.0 (-2.1)	3.4 (-6.5)	3.0 (-4.3)	2.3 (0.4)	3.9 (5.2)	1.3 (5.0)
	서울	7.7 (3.2)	0.7 (-1.6)	-0.5 (-2.8)	1.3 (-0.1)	0.1 (-1.7)	2.9 (2.5)	-0.9 (0.4)
	55-59세	1.9 (2.3)	2.7 (-1.3)	5.4 (-0.7)	7.2 (-0.5)	8.3 (0.0)	7.3 (1.9)	5.7 (0.9)
	60세 이상	12.7 (3.6)	-0.9 (-1.7)	-5.1 (-4.6)	-3.1 (-1.1)	-5.9 (-3.1)	-2.4 (5.4)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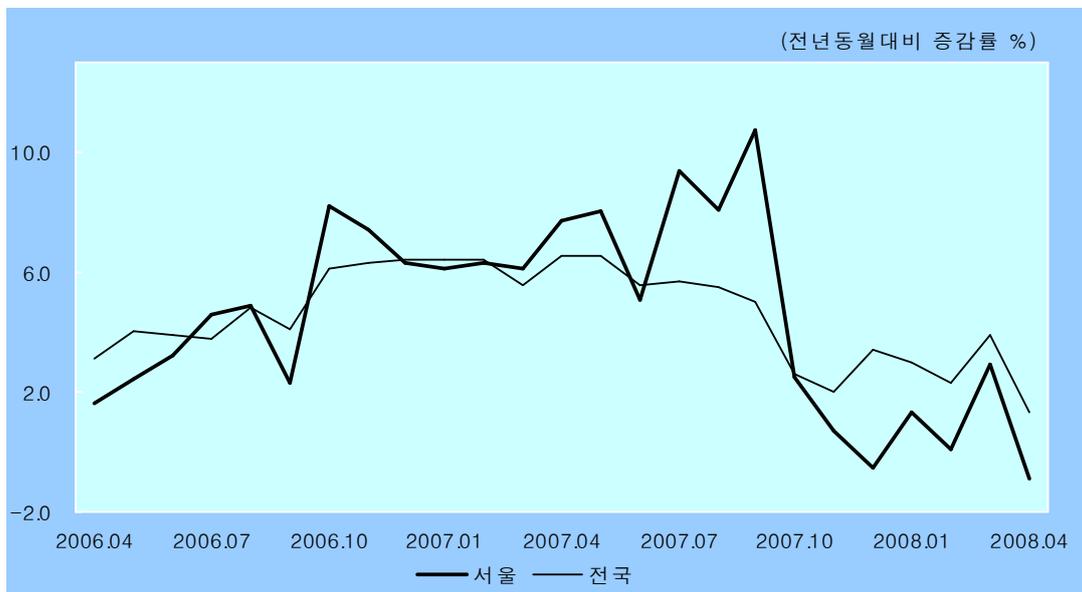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사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1.4%), 사무종사자 19천명(2.4%), 서비스판매종사자 28천명(2.3%),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17천명 (1.1%)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4천명(-3.8%)이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69.0%), 기능기계조작 조립 단순 종사자 47천명(3.6%), 사무종사자 18천명(2.3%)이 각각 증가하였고, 서비스판매종사자 42천명 (-3.3%),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10천명(-0.6%)이 각각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70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9천명(-1.5%)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28천 명(0.8%)이 증가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25.7%, 임금근로자 74.3%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10천명(-0.9%), 무급가족종사자는 9천명 (-4.9%)이 각각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5천명(4.7%), 일용근로자 11천명(2.0%)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 68천명(-5.3%)이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비임금근로자 38천명(-2.9%)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 54천명(1.5%)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9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명(-4.0%)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명(0.4%)이 증가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업별	제조업	-6.2 (2.3)	-9.8 (-8.5)	-8 (0.2)	-8.5 (0.3)	-9.6 (-4.4)	-1.0 (8.4)	-2.9 (0.4)
	SOC 및 기타서비스업	1.7 (1.0)	2.5 (1.4)	1.6 (-1.5)	2.1 (-0.1)	2.1 (-0.5)	1.5 (0.4)	0.8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0 (1.5)	4.5 (-0.7)	4.7 (-1)	4.1 (-0.4)	2.5 (-1.4)	1.9 (1.1)	1.0 (0.6)
	도소매·음식숙박	-4.0 (-1.8)	-3.5 (2.7)	-3 (2)	-1.3 (-0.7)	0.7 (-0.1)	0.9 (0.6)	1.0 (-1.6)
	전기·운수·통신·금융	3.4 (5.6)	9.7 (6.6)	2.4 (-6.8)	3.0 (2.0)	3.0 (-0.8)	5.0 (-2.3)	0.9 (1.4)
	건설업	0.4 (2.2)	4.8 (0.5)	2.3 (-7.9)	3.1 (1.0)	4.0 (3.0)	-2.5 (0.5)	-1.1 (3.6)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7 (1.5)	3.2 (-0.9)	6.8 (1.1)	4.6 (-0.5)	1.4 (-2.4)	3.3 (1.9)	1.1 (-0.6)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1.7 (2.2)	-2.1 (-2.5)	-2.5 (-3.9)	-2.5 (-0.2)	-5.2 (-1.9)	-5.1 (1.4)	-3.8 (3.6)
	서비스·판매종사자	-0.7 (-1.0)	3.2 (4.8)	-2.5 (-2)	1.8 (0.2)	5.5 (-0.3)	4.7 (2.1)	2.3 (-3.3)
	사무종사자	4.0 (2.2)	-3.4 (-1.3)	-3.1 (-0.1)	-3.9 (0.6)	0.3 (2.1)	2.3 (0.1)	2.4 (2.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8 (1.7)	1.5 (-0.7)	1.6 (-1)	0.9 (0.6)	0.4 (-1.5)	1.0 (0.8)	0.8 (1.5)
	비임금근로자	-3.3 (-0.3)	-1.9 (1.9)	-3.8 (-2.1)	-0.8 (-1.9)	0.2 (0.4)	1.2 (3.5)	-1.5 (-2.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4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하락

- 2008년 4월 실업자는 7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4.0%)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4.6%) 감소하였고, 여자는 26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8%)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와 60세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40대와 60세이상에서 상승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 전월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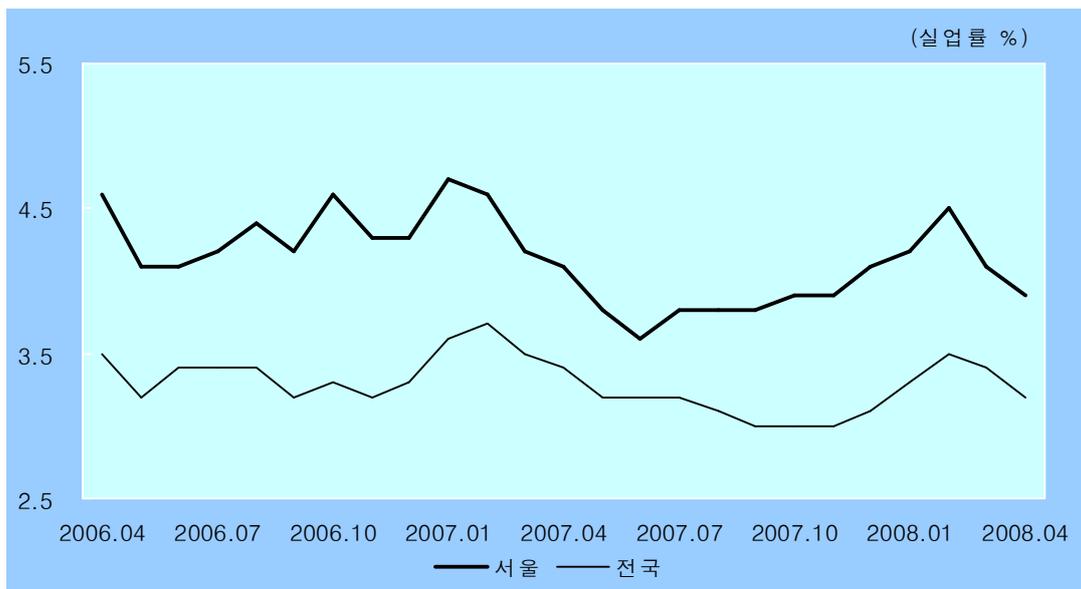
- 2008년 4월중 실업자는 199천명,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3천명(-5.9%), 실업률은 0.2%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8천명으로 15천명(-10.3%)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71천명으로 2천명(3.2%)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5%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0.1%포인트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13천명(-6.2%), 실업률은 0.2%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천명(-0.9%), 여자는 12천명(-14.5%)이 각각 감소
- 실업률은 남자는 0.1%포인트, 여자는 0.5%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3.4	3.0	3.1	3.3	3.5	3.4	3.2
서울		4.1	3.9	4.1	4.2	4.5	4.1	3.9
성 별	남자	4.8	4.2	4.4	4.6	5.0	4.4	4.3
	여자	3.2	3.6	3.7	3.6	3.8	3.8	3.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3월(1/4분기)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및 동분기 대비 모두 증가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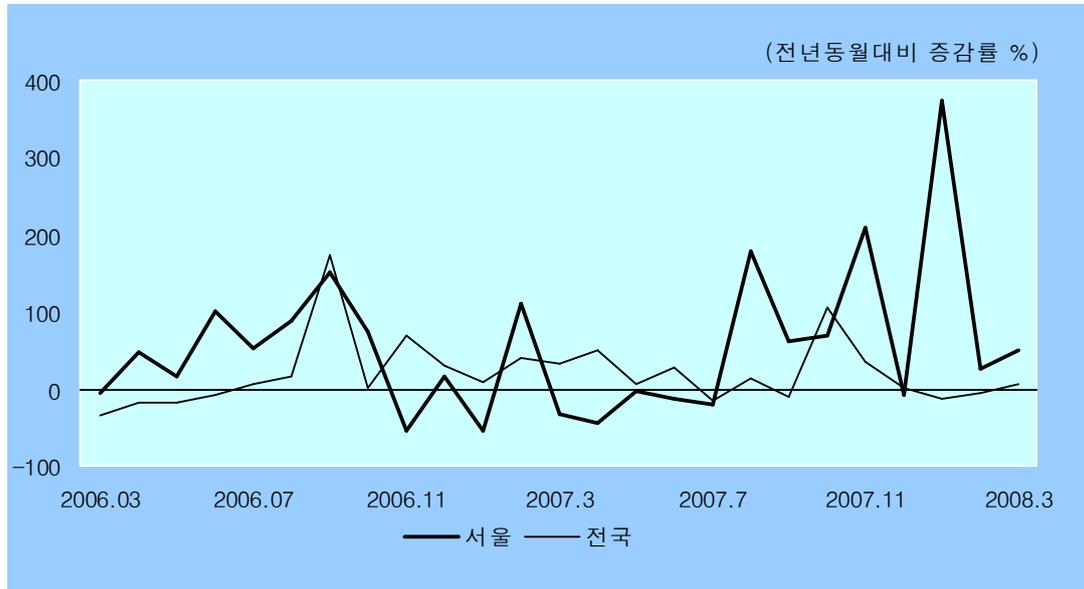
- 3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8조 3,66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1,39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0%가 증가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증가로 43.2%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재개발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증가로 47.5%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3.6%를 차지
- 1/4분기로는 전년동분기 대비 106.1%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7,941.9	12,311	16,272	5,570	5,931	8,366	5.3	41.1	
서울	765.1	1,362	1,581	1,997	1,078	1,139	48.9	5.7	
발주 자별	공공	162.0	265.7	226.2	63	88	232	43.2	163.6
	민간	603.1	657.9	1,349.6	1,933	990	889	47.4	-10.2
공종 별	건축	654.1	917.9	1,479.3	1,953	1,031	1,100	68.2	6.7
	토목	103.2	442.3	96.6	43	46	37	-64.1	-19.6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4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강세 지속

■ 4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확대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강북지역 소형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상승폭이 전월대비 다소 확대되며 0.9% 상승
- 전국 142개 시·군·구 대상지역 중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103개 지역이고 보합인 지역은 16개 지역, 하락한 지역은 23개 지역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 지역이 많음

■ 4월 기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강세 지속

- 서울은 전월대비 1.6%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이 2.4%, 강남지역이 0.9% 상승하며 강북지역의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강남지역도 상승폭이 확대됨
-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가 5.9% 상승으로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도봉구는 법조타운 건립 및 재개발 등의 호재로, 강북구는 경전철 및 드림랜드 개발 등의 호재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강남지역에서는 관악구가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정비 기본방향 발표 및 경전철, 백화점 입점 등의 호재로 1.9% 상승하였고, 구로구가 경서지구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 발표와 교도소 이전 및 복합단지 조성 등의 개발 호재로 상승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전국	98.5		101.4	102.2	3.8
서울	97.3		102.8	104.5	7.5
아파트	98.7		101.0	104.4	5.8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5.5	104.2	106.7	11.8
	강남	99.0	101.5	102.4	3.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2.4%가 상승하여 서울 전체 상승률(1.6%)를 상회하였음
- 노원구가 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봉구(4.6%), 강북구(3.5%), 중랑구(2.3%)의 순서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동대문구성북구(1.7%), 서대문구종로구(1.5%)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하였음
- 마포구(0.8%), 광진구(0.7%), 성동구용산구은평구중구(0.5%)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에서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 강남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상승률 및 구별 상승률 모두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음
- 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1.9%), 구로구(1.8%), 강서구(1.6%), 금천구(1.4%)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 평균 상승률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서초구송파구양천구의 상승률은 0.1%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강남구도 0.5% 상승률에 그치고 있었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상승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강북은 3.5%, 강남은 0.7% 상승하여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지난달에 이어 강북의 상승폭이 더 큼
- 구별로 보면 노원구(6.3%), 도봉구(5.1%), 중랑구(4.6%), 강북구(3.9%), 동대문구(2.3%)의 순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양천구(-0.2%)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서초구송파구(0.1%)의 상승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1,819만원) 이상인 구는 강남구(3,508만원), 서초구(2,743만원), 용산구(2,513만원), 송파구(2,490만원), 양천구(2,058만원), 강동구(1,898만원), 광진구(1,867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통계 생성 기준인 2008년 4월 25일 현재 금천구(976만원)가 유일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4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

- 4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은 전월과 동일
 - 4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의 지속으로 전월과 동일한 0.6% 상승을 보였으나, 전세물량 부족 현상은 전월에 비해 완화됨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
 - 4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하고 강북 지역이 1.1%, 강남 지역이 0.6%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임
 -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가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및 주변 뉴타운 이주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북강북서대문구는 물량 부족으로 각각 1.8% 상승함
 - 강남 지역에서는 구로구가 고척 3구역 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1.1% 상승하였고, 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교통개발 호재와 신규입주 물량 감소로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전국	99.0		101.1	101.7	2.7
서울	98.4		101.8	102.7	4.4
아파트	99.9		101.2	101.8	1.9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7.3	102.5	103.7	6.5
	강남	99.4	101.1	101.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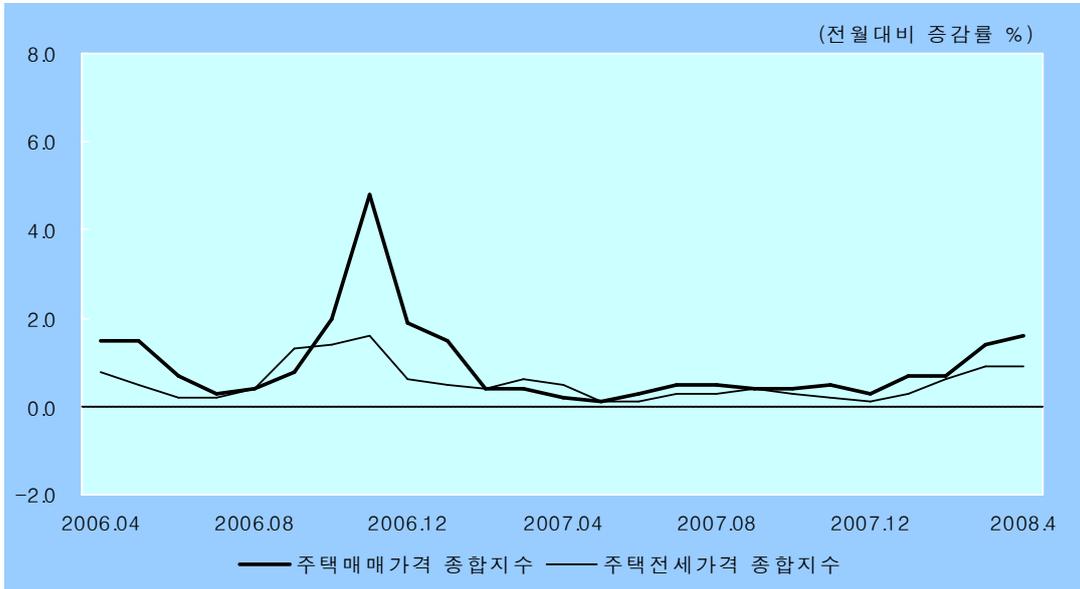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도봉구, 강북구·서대문구·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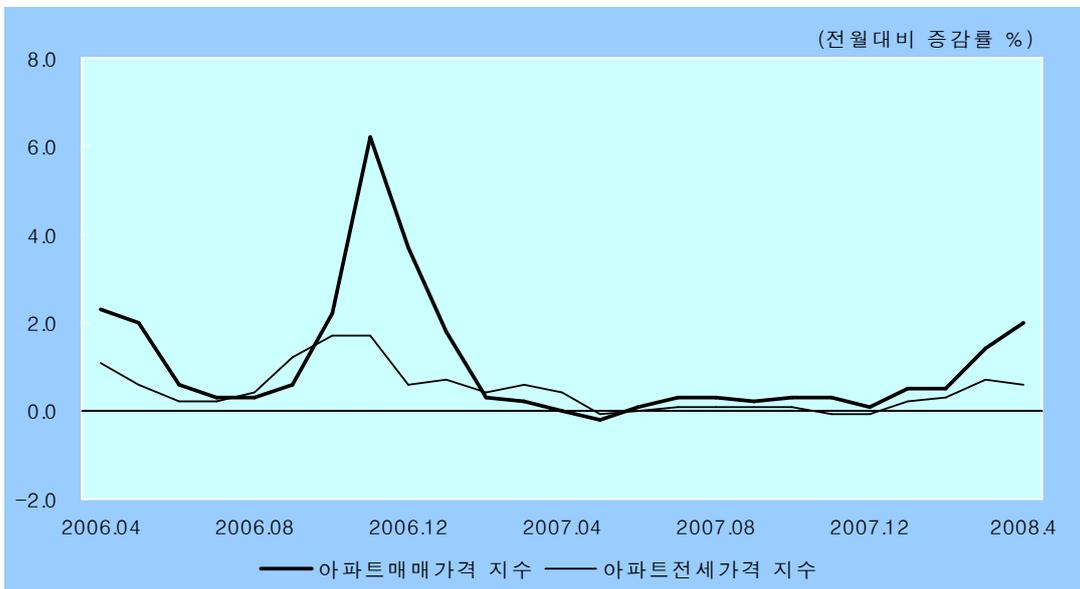
- 강남북에서 도봉구(2.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강북구·서대문구·성북구가 1.8%로 나타났음. 이어서 노원구(1.6%), 구로구(1.1%), 강서구·동대문구(1.0%)에서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0.9%)을 상회하고 있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하락이 지속되어 40.3%까지 도달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6년 11월 45% 미만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4월 현재 역대 최저인 40.3% 수준까지 도달하였음
- 2008년 4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9% 하락하였음
- 서울은 전국 평균 53.4%를 13.1%p 밑돌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0월:11.5%p, 11월:11.7%p, 12월: 11.8%p, 1월: 12.0%p, 2월: 12.1%p, 3월: 12.4%p)는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4.2%, 강남은 37.1%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7.1% 수준임
- 강북지역은 강남에 비해 비율 하락이 크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강북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높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4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후 등락 반복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후 등락 반복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지난달 금통위(4.10일) 이후 큰 폭 하락
 - 추후 발표되는 물가지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 반복
(3월말 5.10% → 4.10일 4.91% → 4월말 5.36% → 5.6일 5.36%)
- CD(91일) 유통수익률 소폭 하락
 - CD 유통수익률은 장기금리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CD 발행물량 증가, 자산운용사 매수세 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
(3월말 5.38% → 4.14일 5.40% → 4월말 5.36% → 5.6일 5.36%)
- 4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소폭 확대
 - 4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48%p로 국고채(3년)하락폭에 비해 CD 유통수익률 하락폭이 작아 소폭 확대에 그침
- 4월 기준 KOSPI 지수 상승세 지속
 - KOSPI 지수는 4월 상반기 중 일시 조정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감 완화, 국내 기업의 실적호조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지속
(3월말 1,704p → 4.15일 1,742p → 4월말 1,825p → 5.6일 1,859p, +9.1%)
- 4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 규모, 축소, 기관 투자자는 순매수 규모 축소
 - 4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 규모를 축소
 - 기관투자자는 순매수 규모를 축소
 - 개인투자자는 순매도로 전환
 - 외 국 인: 08.2월 -2.1조원 → 3월 -2.4조원 → 4월 -1.0조원
 - 기관투자자: 08.2월 +0.5조원 → 3월 +1.6조원 → 4월 +1.2조원
 - 개인투자자: 08.2월 +0.2조원 → 3월 +0.3조원 → 4월 -0.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금 리	국고채(3년)	5.05	5.89	5.44	4.97	5.10	4.88	-4.31
	CD(91일물)	5.00	5.73	5.81	5.18	5.38	5.36	-0.37
	콜금리(1일)	4.88	4.99	4.99	4.97	4.97	4.99	0.40
	장단기 금리차 ¹⁾	0.17	0.16	-0.37	-0.21	-0.28	-0.48	71.43
주 가	KOSPI ²⁾	1,542.2	1,908.6	1,732.3	1,689.5	1,651.1	1,776.58	7.60
	KOSDAQ ²⁾	675.9	722.3	667.1	647.4	627.5	647.78	3.23
환율 (₩/US\$) ²⁾	930.8	930.2	942.4	944.7	982.5	987.24	0.48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4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3월 +2.4조원 → 4월 +3.4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증가 등으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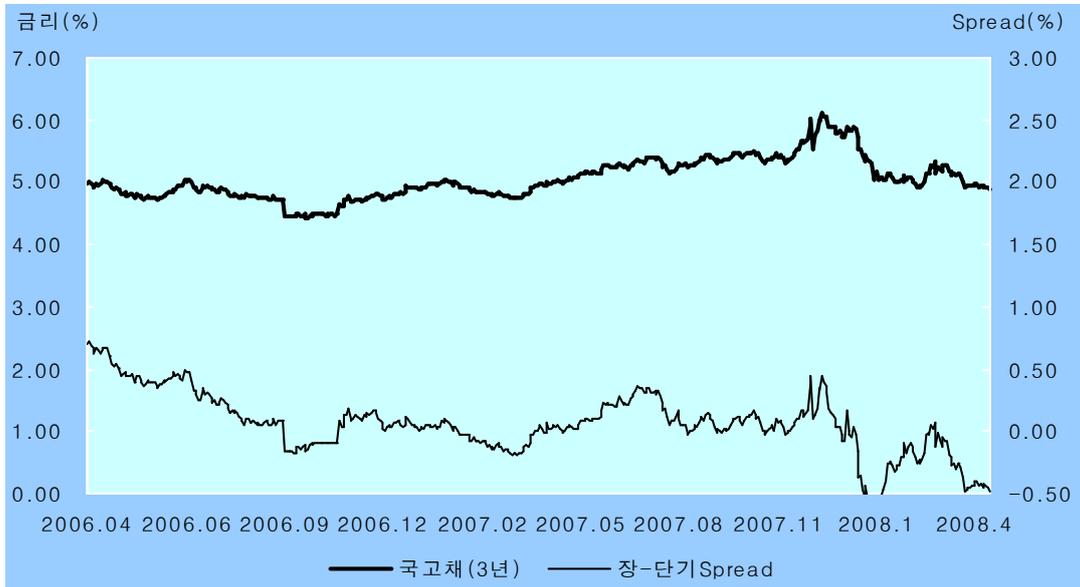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 월비
	연중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8년		
							3월	4월	
가계대출 ¹⁾	17.8	-0.3	-0.7	2.3	2.4	3.4	367.4	370.8	0.9
주택담보대출 ²⁾	4.6	-0.0	0.8	0.8	1.0	2.4	224.3	226.6	1.0
마이เนอร์스통장대출 등	13.0	-0.3	-1.5	1.5	1.4	1.0	141.3	142.4	0.7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3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97조 8,869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 3,148억원이 증가함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43조 1,244억원이고, 전월대비 10조 1,247억원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 국	예금은행	717,066.5	803,724.1	815,649.1	822,528.9	833,537.3	1.3
	비은행기관	223,550.9	255,148.6	257,924.6	258,043.2	264,349.6	2.4
	합계	940,617.4	1,058,872.7	1,073,573.7	1,080,572.1	1,097,886.9	1.6
서 울	예금은행	295,805.6	343,162.9	350,225.9	352,812.4	358,932.4	1.7
	비은행기관	65,573.2	79,473.8	81,683.0	80,187.3	84,192	5.0
	합계	361,378.8	422,636.7	431,908.9	432,999.7	443,124.4	2.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3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3월 서울의 자금 지역환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보다 0.8%p 상승한 59.5%를 기록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서울의 예대율 상승폭 보다 약간 큰 1.2%p를 전월보다 상승하여 88.0%를 기록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율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 국	84.1	87.9	87.5	86.9	86.8	88.0	1.3
서 울	55.6	58.4	59.1	58.6	58.7	59.5	1.3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3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 대비 감소
 - 3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670개로 전년동월 대비 -5.3%(262개) 감소
 - 전년동월을 기준으로 볼 때 업종별로는 제조업(-12.0%), 건설 및 전기가스증가수도사업 (-11.7%), 서비스업(-1.9%)이 감소하였음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5.6%, 제조업 17.8%, 건설 및 전기가스증가수도사업 15.4%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69개로 전월대비 19.3%(270개)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932	4,249	5,298	3,829	4,670	-262	-5.3	841	22.0
서울	1,879	1,520	1,875	1,399	1,669	-210	-11.2	270	19.3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폭 확대

■ 전국 어음부도율 상승폭 확대

- 4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6%로 전월(0.03%)보다 0.03%p 상승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34개로, 전월(176개) 보다 58개 증가
-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어난 가운데 서비스업·건설업이 비교적 크게 증가(각각 +25개, +19개)

■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폭 확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5%로 전월 0.02% 보다 0.03%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9개로 전월보다 7개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55개로 51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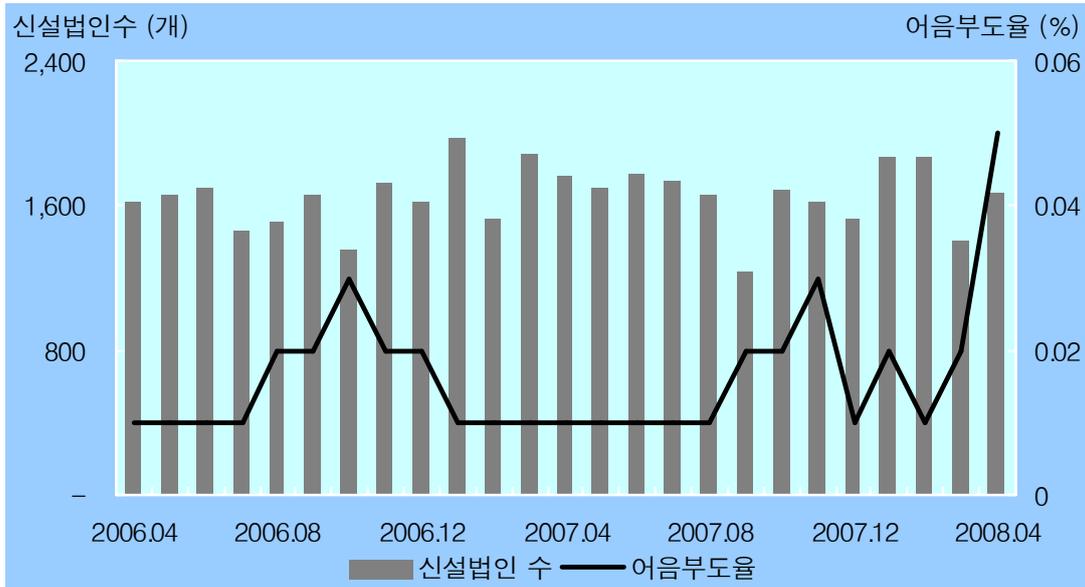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2	0.03	0.06	0.03	100.0	0.04	200.0
	부도업체 수	169	193	186	176	234	58	33.0	65	38.5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1	0.02	0.05	0.03	150.0	0.04	400.0
	부도업체 수	52	67	66	72	79	7	9.7	27	51.9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안정적 보증 공급 유지

■ 신용보증 공급 전월수준 유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4월중 1,396건, 54,741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5.8%, 금액 4.1% 증가
- 전체적인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은 전월수준으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
-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2008년 4월 10일)에 따른 보증 공급 증가가 예상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254	838	597	983	1,319	1,396	77	5.8	-1,858	-57.1
금액	71,217	26,479	17,926	32,211	52,566	54,741	2,175	4.1	-16,476	-23.1
건당평균금액	21.9	31.6	30.0	32.8	39.9	39.2	-0.7	-1.8	17.3	79.0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타업종의 비중(금액기준) 소폭 증가

- 4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기타업종의 비중(금액기준)이 2.7%p 증가하며 13.3%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1.9%p 감소하여 15.2%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65	552	276	318	85	1,396
비율	11.8	39.5	19.8	22.8	6.1	100
금액	8,330	21,995	6,479	10,649	7,288	54,741
비율	15.2	40.2	11.8	19.5	13.3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3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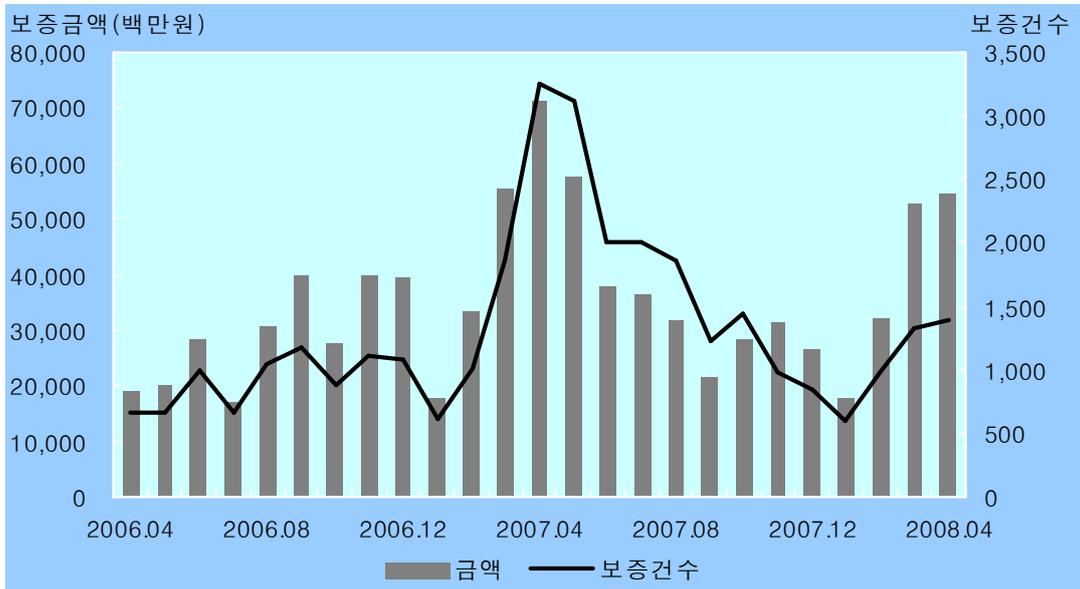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건당평균금액의 증가로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며 68.6%나타낸 반면,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2.2%를 나타내며 증가세를 유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2	2008.03	2008.04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901	1,207	1,227	20
	비율	91.7	91.5	87.9	-3.6
	금액	24,788	38,974	37,584	-1,390
	비율	77.0	74.2	68.6	-5.6
소기업	건수	57	86	134	48
	비율	5.8	6.5	9.6	3.1
	금액	4,655	9,010	12,136	3,126
	비율	14.4	17.1	22.2	5.1
중기업	건수	25	26	35	9
	비율	2.5	2.0	2.5	0.5
	금액	2,768	4,582	5,021	439
	비율	8.6	8.7	9.2	0.5
합계	건수	983	1,319	1,396	77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2,211	52,566	54,741	2,17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증가세로 전환

■ 전국 수출수입 균형 수지 근접

- 4월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380.3억달러, 수출은 26.3% 증가한 378.4억달러로 무역 균형 수지에 근접
- 고유가에 따른 원유 등의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균형수지로 전환
- 주력품목의 호조로 고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
- 품목별로 석유제품(유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선박류(조선산업 호황), 일반기계(중국 신흥시장 수요지속), 무선통신기기(3G제품을 중심으로 수요증대), 액정디바이스(지속적 수요 강세)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도체(가격약세)는 보합세, 컴퓨터는 수출 감소세

'07.41~20 : 13.0% → '08.41~20 : 35.5%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증가

- 수입 가운데 원자재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와 철강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세
- 자본재는 자동차부품(18.4%), 집적회로반도체(23.7%) 등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부품(△21%), 반도체제조용장비(△39%)등의 수입은 하락
- 소비재는 농산물(51%), 승용차(41%), 전자게임기(307%) 등을 중심으로 증가

■ 4월 기준 서울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

'08.2 : 29.3억달러 → '08.3 : 27.6억달러

- 4월 서울의 수출은 편직물, 반도체, 컴퓨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인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247%), 항공기 및 부품(253.1%), 컴퓨터(166.7%)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40.9%의 증가율을 기록
- 특히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중 4월 기준 31.8억달러의 증가세로 전환

■ 4월 기준 서울 수입은 증가세 유지

- 서울은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
- 특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20.8%), 철강관(124.9%), 반도체(119.0%)의 수입 증가율이 매우 커 수입 증가세를 유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9,961.8	35,837	33,030	32,323	31,157	36,046	37,843	7,881.2	26.3	1,797.0	5.0
	수입	29,325.6	33,707	33,896	36,109	32,406	36,863	38,038	8,712.4	29.7	1,175.0	3.2
서울	수출	2,261.0	2,515	2,299	2,905	2,934	2,761	3,185	924.0	40.9	424.0	15.4
	수입	5,892.9	6,409	6,528	7,380	6,437	7,431	8,217	2,324.1	39.4	786.0	10.6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98,074	0.5	197,030	10.4
2	반도체	197,128	18.3	166,662	-6.9
3	컴퓨터	153,298	166.7	57,482	-29.1
4	자동차부품	145,377	33.5	108,894	21.1
5	고무제품	125,419	20.6	103,987	13.4
6	합성수지	119,848	36.7	87,641	3.1
7	항공기 및 부품	101,033	253.1	28,610	24.3
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3,660	1,247.0	6,953	57.0
9	의류	90,262	-11.6	102,052	-30.1
10	인조장섬유직물	89,417	14.6	78,054	13.9
	합계	1,313,516	1,779.4	937,365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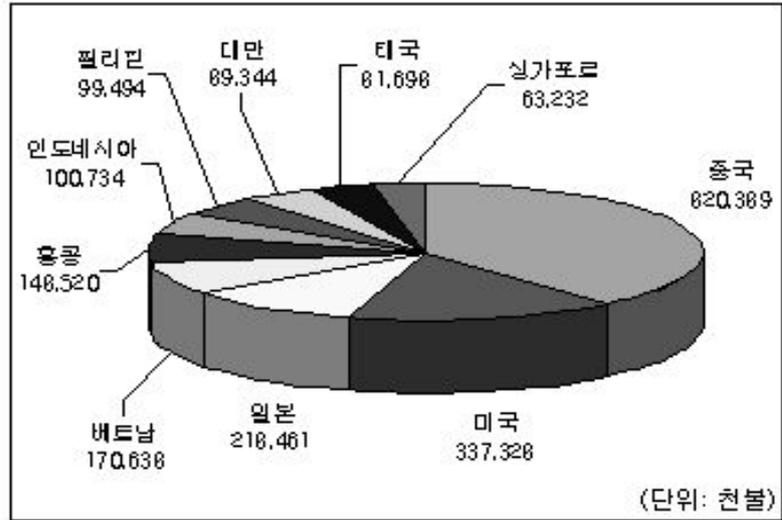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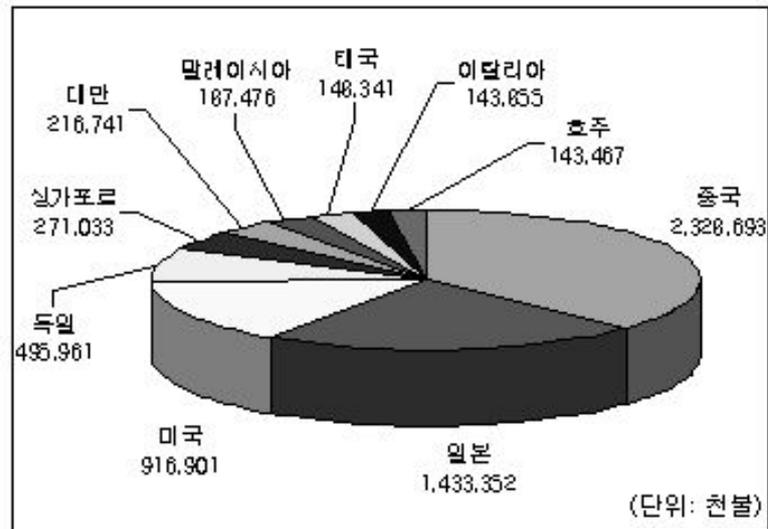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842,369	119.0	384,640	13.9
2	컴퓨터	475,397	17.9	403,230	-4.7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23,168	220.8	100,731	-9.9
4	의류	321,032	10.5	290,400	47.2
5	자동차	247,365	20.9	204,584	-9.3
6	철강판	243,910	124.9	108,429	73.4
7	LPG	235,587	-	0	-
8	무선통신기기	173,860	58.9	109,404	-13.7
9	곡실류	155,576	68.7	92,202	24.9
10	알루미늄	155,388	22.9	126,425	23.6
	합계	3,173,652	664.5	1,820,045	145.4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